

구치후삼각에 발생한 편평상피세포암에 대한 임상적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최은창 · 이세영 · 김지훈 · 이현석

목 적 : 구강 중 구치후삼각에 발생하는 편평상피세포암은 초기증상이 드물어 진단 당시 진행된 예가 많고 주위에 하악골이 근접해 있어 진단 시 질환의 범위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체 구강암에서 차지하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아 치료방법의 선택이나 치료결과에 분석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이 경험한 구치후삼각암의 치료경험을 정리하여 향후 구치후삼각암의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방 법 : 1997년 5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구치후삼각암으로 치료를 받은 8예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8예 모두 남자였으며 병리소견도 모두 편평상피세포암종이었다. 치료방법은 수술만 시행한 경우가 1예, 수술과 술 후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가 6예였으며 방사선치료 후 구제수술을 한 경우가 1예로 평균추적관찰기간은 25.3개월이었다. 병기는 2002년 AJCC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 원발병소에 따른 T병기별 분류는 T1 3예, T2 3예, T4 3예이었다. N병기별 분류는 N0 3예, N1 2예, N2 4예로 66.7%에서 경부전이가 관찰되었다. 수술방법은 하악골 절개술 또는 절제술이 4예, 협부 피관 접근법이 4예였으며 병변이 작고 표층에 존재하였던 2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악골의 일부를 절제하였다. 술후 재건은 8예 모두에서 시행하였는데 전완유리피판이 6예, 전외측대퇴피판이 2예였다. 술후 주요 합병증으로는 plate exposure가 1예 있었다. 환자들의 현재 상태는 무병생존이 6예, 재발로 인한 사망이 1예, 추적관찰 소실이 1예로 2년 생존율은 75%였다.

결 론 : 구치후삼각암은 수술 시 종양의 범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악골에 대한 처치와 재건술을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는 암종으로 비록 예수가 적지만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통해 만족할 만한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